



Vol. 4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발행처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발행일 2021년 3월 1일
발행인 김철수
편집 박대우
디자인 장민정
표지사진 전태극

© 2021 속초문화재단
저작권자가 표시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가 갖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재단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4821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155 (영랑동 570-5)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T. 033-636-0671 (문화특화지역추진팀)
F. 033-636-0665
www.sokchocf.or.kr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www.oksc.or.kr

목차

문화도시 알기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들

문화도시 갤러리 Part 1: 오케이속초, 2020 > 02

김은우, 속초문화재단

주목 인터뷰

‘파도’ ‘바람’ ‘열정’ 극단 파·람·불을 만나다 > 06

김민혁, 극단 파·람·불 김강석 대표 인터뷰

속초사색

문화예술작품수집 ‘속초아트컬렉션’ > 10

김중현·윤경·정광섭·임흥빈

공간의 발견

쉼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 > 14

함연화, 풀뭉툼 갤러리의 한도웅 회장을 만나다

전임 신고합니다

속초의 속초다움이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 18

박승연, 숲휴게소 매니저

이야기 보따리

실향민들의 마음의 고향, 내 기억 속 아바이마을을 그리다 > 20

차수정, 속초문화재단

우리 곁의 사람들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 24

박대우, 기록사진가 전태극 인터뷰

속초 느낌표

책 읽기가 힘든 어른들을 위해 추천하는 가벼운, 그러나 묵직한 그림책 > 28

김중현, 어린이책 읽는 어른 모임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 30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들

문화도시 갤러리 Part 1: 오케이속초, 2020



이번 전시는 문화재단의 출범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의미하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취지의 항해(voyage)를 필두로 하여 속초라는 배에 시민 모두가 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담아 전시실의 중심에는 배 모양의 조형물 위에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BI를 전시했다.



02
 ∨
 03

2020 WITH COVID19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변했다. 대면이 불가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언택트(un+contact) 문화, 비대면 생활에 대응하는 IT 기술의 발전,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코로나19는 어느새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2020년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작품을 수집한 <속초아트컬렉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고락영상수집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소규모 주제 토론회 <시민문화활동가 9~10월 정기활동>, 활발하게 활동 중인 지역 대표 인물의 아카이빙 <속초 인물 수첩>, 문화활동이 어려워진 중년층을 위한 비대면 문화활동 <내가 그린 그림일기>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속초문화재단은 2021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문화도시 갤러리 Part 1: 오케이속초, 2020'라는 테마로 2020년도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성과 공유를 위한 <문화도시 갤러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단의 출범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의미하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취지의 항해(voyage)를 필두로 하여 속초라는 배에 시민 모두가 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담아 전시실의 중심에는 배 모양의 조형물 위에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BI를 전시했다.

문화도시 갤러리 Part 1. 오케이속초, 2020

<문화도시 갤러리>에서는 전시실 입구의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굿즈 개발, 사업 소개, 소식지 『오코사츠』, 시민문화활동가, '맛애(愛), 속(SOK)', 속초아트컬렉션, 속초 인물 수첩, 도시기록가의 결과물 등을 전시했다.

굿즈 개발

속초공감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민문화활동가 소모임으로, 속초의 특색을 한껏 담아낸 굿즈들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와 붉은대게를 캐릭터화한 굿즈들을 소개했다. 전시된 굿즈들은 속초 해변과 울산바위를 표현한 트레이,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해변가에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활용한 목각 작품,

바다의 형상을 담은 레진 작품 등이 있다.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개

이 코너에서는 이 조성사업의 정의와 목표 및 추진 경과 등을 전시했다. 2020년의 결과물뿐 아니라 2021년 올해의 추진계획을 미리 살펴봄에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소식지 '오케이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잡지로 서 격월간으로 발간된다. 2020년 9월 창간호를 시작하여 2021년 1월 3호까지 시민문화활동가들이 직접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 자신의 손과 발로 만든 소식지다. 소식지 표지에도 쓰여 있는 '오케이'는 오케이속초의 음절마다 초성을 골라 나열한 표현으로, 속초의 문화를 발랄하게 즐겨보자는 마음을 담은 타이틀이다. 이번 갤러리에서는 창간호부터 3호까지 전시되었다.

맛애(愛), 속(SOK)

시민문화활동가 11명이 속초의 대표 메뉴 선정,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통계, 식당 방문 및 조사, 원고 작성, 출판물 디자인, 편집 등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 시민 프로젝트다. 기록물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북인 『마썸! 속초』 발간 및 SNS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쉽고 친근감 있게 '속초의 맛'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속초 문화와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고자 했다. 이번 갤러리에서는 『마썸! 속초』에 소개된 '속초의 맛 11선' 즉 명태회 냉면, 순대, 장칼국수, 닭강정, 막국수, 물회, 감자옹심이, 물곰탕, 명태오리, 순두부, 기타 퓨전요리를 소개하고, 그중 지역을 대표하는 맛을 뽑아보는 앙케이트 코너를 준비했다.

속초아트컬렉션

그동안 지역 예술인의 창작품을 수집해온 '속초아트컬렉션'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한 문학 3점, 미술 2점, 음악 2점, 사진 2점은 속초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로서 각기 다양한 풍취를 담고 있다. 선정 작가 대부분이 시민문화활동가로도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들의 예술이 더욱 저변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

속초 인물 수첩

속초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이 코너는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다'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을 보내서 답을 듣는, 지금의 언택트 문화에 알맞춘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 코너에서는 인터뷰 영상과 인터뷰이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볼 수 있었다.

도시기록사업

변화하고 있는 속초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업이다. '도시기록가'는 지역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집중한다. 사업에 참여한 도시기록가들이 속초 여러 곳을 나눠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장면을 기록했다.

시민문화활동가

'살고 싶은 속초'를 위해 모인 속초 시민들로서, 문화도시로 발전해가는 속초의 문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문화기획자, 크리에이터, 개인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시민 주도의 기반을 마련한다. 활동가들은 다 같이 모여 소통하는 '속초곰감'의 장뿐만 아니라 달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문화를 공유하는 정기활동, 속초를 문화도시로 만들고픈 열정으로 수집



한 아이디어,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소규모 주제 토론회와 온라인 생중계 등으로 2020년 한해를 채워나갔다. 시민문화활동가 코너에서는 여러 활동가 모임에 관한 설명과 2020년 활동가 100인의 명단을 소개했다. 한 해 동안 활동가들이 보여준 문화도시 속초를 향한 열정과 성원에 감사를 표한다.

속초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 지나온

1년 동안 속초문화재단과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비대면 문화예술사업의 필요와 이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문화예술사업 등과 함께 '사람'의 소중함을 유독 깨달은 해였다. 우리는 또 언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2021년 올해에는 속초 시민들이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파도’ ‘바람’ ‘열정’ 극단 파·람·불을 만나다



© 극단 파·람·불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에 대해 고민하고, 논쟁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배들께서 지지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오셨기에 속초 연극의 역사가 이어져왔고, 그 길을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06
 ∨
 07

극단 파·람·불

- 1989 극단 파·람·불 창단
- 1991 제9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제8회 강원연극제 대상
- 2014 제31회 강원 연극제 동상, 최우수연기상
- 2015 제33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연출상
제32회 강원연극제 대상, 우수연기상,
최우수연기상
- 2017 한국연극 베스트 작품상
- 2018 제35회 강원연극제 은상, 우수연기상
- 2019 제37회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
제36회 강원연극제 대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 2020 제37회 강원연극제 대상, 연출상,
무대예술상, 최우수연기상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남자연기상,
무대예술상
한국연극 베스트 작품상
제1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 대상

속초의 연극은 강원연극제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연극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며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속초에서는 소울씨어터, 청봉, 파·람·불 등의 극단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특히 작년 12월 파·람·불(이하 '파람불')이 '2020 제38회 대한민국 연극대상'을 수상하며 속초 시민들의 긍지를 드높인 바 있다. 이에 속초의 여러 극단 중에서 극단 파람불의 이야기를 김강석 대표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극단 파람불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극단 파람불은 강원도 속초를 기반으로 연극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1989년 창단해 현재까지 30년 넘게 활동해왔으며, 연극이라는 순수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극단 이름의 연원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파람불은 속초를 상징하는 파도의 파, 바람의 람, 그리고 연극을 하는 열정의 불, 이 세 글자를 합한 단어입니다.

극단 파람볼의 단원들을 포함해 함께 작업하는 이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는 올해부터 극단 파람볼의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극단 단원으로는 석경환 전 대표를 비롯해 예전부터 지역 연극을 이끌어주신 김태영, 남상진, 신오일 등의 선배들, 추교미, 김영주, 고문선, 이상렬, 고은석 등의 동료·후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은 공연에 따라 새로운 연출, 다양한 객원 배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속초 지역 연극인뿐 아니라 강원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배우, 연출자 등 작품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작품을 같이 한 연출자로는 변유정, 윤정환 님이 계시고, 지역 극단인 소울씨어터, 청봉 등과 함께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속초 연극은 전국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왔는데요. 유독 속초 연극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뻘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곳의 연극인들이 진정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에 대해 고민하

고, 논쟁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배들께서 치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오셨기에 속초 연극의 역사가 이어져왔고, 그 길을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속초는 많은 실향민들이 사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도시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분단의 아픔, 응어리들이 자연스럽게 연극에 녹아들었고 이에 공감해주는 관객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런 공연들이 축적되어 그동안 전국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2차례나 수상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연극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떤 상을 수상하셨죠?

작년에 지역 출신 극작가 이반 선생님의 희곡으로 변유정 연출자와 함께한 <그날, 그날에>라는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편의 작품에만 주어지는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척 기쁘고 벅칩니다. '대한민국 연극대상'을 받을 수 있게 함께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설명

앞쪽 2020년 공연작 <그날, 그날에> 단체사진

왼쪽 극단 파.람.불의 대표작들. 왼쪽부터 <전명출
평전> <고래> <그날, 그날에>

오른쪽 <고래>의 한 장면



08
∨
09

그 밖에도 저희 극단은 그동안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2회 수상했습니다. 1991년 <제9회 전국연극제>에서 <한씨연대기>라는 작품으로 처음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5년 '제33회 전국연극제'에서는 <전명출 평전>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한번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텐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작년은 정말 공연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연을 하려고 하면 공연장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영주 씨와 문선 씨의 보통의 날들> 공연은 속초문화재단의 '온라인중계 지원사업' 덕분에 진행할 수 있었고, <옥이가 오면> 공연은 처음부터 촬영을 통해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공연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공연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좀 안정되어서 관객들과 마주하고

공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속초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속초에는 연극을 열심히 만드는 좋은 극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공연하고 만들어가는 여건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고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여건들 중 하나가 속초시립극단의 창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에서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설공연을 만들어 매년 속초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속초 연극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초 연극인들이 꾸준히 연극을 해올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연을 보러 극장에 찾아와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신나며 감동 있는 공연으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연극 및 공연예술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사색

문화예술작품수집 '속초아트컬렉션'

봄눈 맞으며 오른
설악산 오솔길 끝

어스름 저녁

내 손바닥 위
오도카니 올라앉은

눈 덮인 지구본 하나

흔들바위, 2020

시인 김종현의 지난해 시 쓰기 주제는 '지역의 자연과 서사를 담아내는 작업'이었다. 이 시는 겨울이 끝나는 무렵, 설악산 흔들바위를 보며 떠오른 시상을 담아낸 작품이다. 아무리 잘 표현한 예술작품도 자연이 갖는 절경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속초의 명소인 흔들바위도 자연이 빚어낸 절창이다. 설핏 내린 눈을 정수리에 얹은 흔들바위에서 시인 김종현은 세상을 본다. 누군가의 손길에 흔들리되, 스스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흔들바위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우주를 본다.

김종현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2001년 『문학마을』로 문학계에 등단한 뒤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설악문우회 『갈매』 동인 회장, 설악신문 칼럼니스트, 속초문인협회 고문, 강원문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속초아트컬렉션은 '2020년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아카이빙 사업 중 하나로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지역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수집되어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평을 얻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속초아트컬렉션 선정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속초아트컬렉션 작품의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해조음(海潮音), 2020

변화무쌍한 사람의 인생은 한시도 쉬지 않는 파도의 모습과 비슷하다. 평온함 속에 나타나는 극적인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의 대비, 그리고 바다가 토해내는 파도의 해조음(海潮音)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즐겁다. 작가 윤경은 이러한 시선으로 속초 바다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캔버스가 아닌 나무판 위에 아크릴 물감과 레진을 사용하고, 속초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모래와 조개를 오브제로 사용했다. 파도를 나타내는 푸른색의 바탕과 흰색의 파도 거품이 어우러져 작품의 구도와 활기를 뽐내낸다.

윤경 속초에 정착하고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특히 속초 바다에 푹 빠져, 작가만의 방식으로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는 그림체험 공방을 운영하며 대중에게 속초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황홀한 산책, 2020

화가 정광섭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비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은 속초 청초호 호수공원의 산책길에서 본 황홀한 저녁 노을을 그린 유화 작품이다. 아카데미한 정통서양화의 기법을 구사한 구상 풍경그림으로, 아름다운 노을을 작가 특유의 기법과 색채로 표현했다.

정광섭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992년 제1회 개인전 이후 다수의 초대 및 작가전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고, 강원미술대전 운영·심사위원과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룡능선 서녘 빛, 2019

설악산은 지상과 천상의 아름다움을 한 몸에 지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산이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인 설악산 공룡능선의 신비로운 자태를 담은 것이다. 밀려오는 운해의 물결과 신록, 그리고 노을 지는 서녘 하늘에 빛으로 물들여 가는 공룡능선을 바라보는 것은 가히 선계(仙界)에 오른 이의 그것에 버금가는 일이다.

임흥빈 설악산의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을 많은 이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웅장함과 천혜의 비경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있다. (사)한국산악사진가협회 부이사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대한민국공무원미술협회의 정회원, 설악사진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지역 작가들의 사랑방이자 작은 전시 공간인 '설악갤러리'(Seorak Gallery)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의 발견

쉼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



폴묵음 갤러리

한도웅 회장을 만나다

© 전태근



© 전시장

업종 서각, 전시, 교육
주소 속초시 중앙로 40번길 25, 1층
시설 서각 공예실, 서각 체험관, 공예미술, 상시 전시관 등

※ 서각 작가들에게는 카탈로그 비용을 제외하고 전시장을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다.

14
 <
 15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흰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운 멋진 날, 풀묶음 갤러리를 찾았다. 갤러리의 대표이자 속초전통서각연구회 회장인 한도용 선생이 반갑게 맞이한다.

풀묶음 갤러리는 작년 12월 문을 열었다. 서각, 인두화(우드버닝) 작품을 상시 관람할 수 있고 체험 및 수강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공간이다. 그런데 갤러리의 이름이 서각 재료인 나무가 아니라 왜 풀묶음일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속초(束草)가 풀묶음 아님니까”라고 묻는다. 속초의 지형이 소가 풀을 뜯는 형상이어서 ‘초우(草牛)’라고도 불렀다는데 풀[草]과 속초라는 이름은 과연 뿔 수 없는 인연인 것 같다.

속초가 고향인 한도용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나무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청년기 때부터 목공예를 조금씩 하며 지내다 서각을 정식으로 배운 지는 16, 17년이 되었고, 시민을 위한 예술공간을 만들고 싶어 이곳을 열어 2021년 2월 정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한도용 회장은 본래 전기 분야에서 일해왔고 지금도 전시장 운영을 위해 서각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 본업이 취미와 연결된 삶이다. 마치 그의 삶이 응축된 듯한 그의 손을 보고 있자니, 서각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다.

서각을 할 때 어떤 칼을 쓰고 어떤 나무를 재료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서각 작업을 할 때는 한쪽만 날이 서 있는 일반 칼을 썼습니다. 좌날과 우날, 망치 이렇게 세 가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양쪽의 날을 다 갖춘 서각도(창칼)를 사용하지요.

서각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나무든 쓸 수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도 연한 나무도 다 사용해요. 단, 작업할 때 너무 무른 나무는 찢어지고, 너무 단단하면 칼이 부러집니다. 단단한 나무일수록 결이 예쁘고 색감도 좋지만 작업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은행나무가 단단함이 중간쯤 되

어 서각용으로 좋습니다. 음악 작품들을 보면 나뭇결(나
이테)이 보이고 색이 예쁩니다. 그에 반해 양각의 작품은
결이 없습니다. 결의 유무에 따라 음악으로 만들지 양각
으로 만들지를 결정하게 되지요.

서각의 작업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서각은 매우 정밀함을 요하는 작업으로 그중에서 전통서
각은 음각, 양각, 음양각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
다. 음각은 나무판 속으로 파내는 것이고, 양각은 요철 부
분을 염두에 두고 글자가 위로 튀어 나오도록 파내는 것
입니다.

전통서각은 색이 단순합니다. 사찰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서각 작품들을 떠올려보세요. 전통적으로는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 혹은 그 정반대로 칠했지요. 현대에 들어서는
무척 다양한 색감으로 만들었습니다. 1989년 몇몇 작가
들이 서각의 채색 방식을 바꿔보자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요.

전통서각에서는 음악을 하더라도 그 음악 속에 어떤 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서리가 있는,
어떤 길 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저 까만색 부분
을 파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 길을 찾아내지는 못합
니다. 하지만 전통서각을 해온 사람들은 그 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느냐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서각은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
어넣어 미적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예술의 한 갈
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서각이라는 예술 장르를 낯설
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게 아궁이
에 불을 때는 집으로 간다면 불쏘시개가 되고, 목수에게
가면 의자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술의 새로운 창조
로서 내 손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

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지요.

**속초에서 2012년 서각 모임 '손끝뜨락'을 창립하여 매해
설악문화제에서 길거리 전시와 체험(탁본) 위주의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속초에도 전통서각을 배우는 분
들이 많은가요?**

현재 전통서각을 개인적으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60명
가량 되고 그동안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에게까지 범
위를 넓히면 총 200명가량이 됩니다. 처음에는 평생교육
문화센터 담당자들이 '서각이 뭐가요'라고 물을 정도였
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무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정도
로만 설명드리고는 그 뒤로 서각을 처음부터 하나씩 가르
쳐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각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뿌듯하고 기뻐
때는 언제인가요?**

작년(2020년) 11월에 제자들과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자 네 분을 부스 개인전으
로 모셨는데 많이 뿌듯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전을 준비해
보면 금전적인 부분부터 만만치 않고, 또한 자기 작품을
선보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 밖에도 대한
민국 문화미술대전에 제자들의 작품을 내보내서 좋은 상
을 받았을 때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더더욱 몸으로 하는 취미보
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만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
다. 이런 이들에게 서각의 매력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
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서각은 치유
프로그램으로 꽤 좋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
지고, 서각 자체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 나무를 만지는 한
두 시간 동안은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작품의 질



© 전태극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각 자체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 나무를 만지는 한두 시간 동안은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작품의 질이 좋으나 나쁘냐를 떠나서, 그것에 빠져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에서 가장 큰 매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
 <
 17

이 좋으나 나쁘냐를 떠나서, 그것에 빠져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에서 가장 큰 매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도웅 회장은 한국서각예술인협회, 한국공예미술협회를 창립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서각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이를 널리 알릴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쉽다고 말한다.

제가 이곳 풀뭇음 갤러리에 자리 잡기 전에 경동대 설악 캠퍼스(舊 동우대) 쪽에 공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원룸촌이었는데 대학교가 사라진 뒤에 행해진 마을을 바꾸기 위해 그 마을 분들에게 서각마을, 솟대마을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도 이

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았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인들은 정부의 작은 지원이라도 감사해합니다. 지금은 양양에서 서각마을, 예술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세우는 등 열심인데요. 속초에서도 예술인 지원이 더욱 다양해지면 외지로부터 많은 예술인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숨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 이는 풀뭇음 갤러리 곳곳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서각작품들 중에서 한도웅 회장이 가장 아끼는 문구다. 풀뭇음 갤러리의 한도웅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작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그동안의 수많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입 신고합니다

속초의 속초다움이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박승연

숲휴게소 매니저.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32년을 살았다. 국문학을 전공하며 한때 문학도를 꿈꿨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음에 절망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언제나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왔고, 언젠가는 마음을 잡고 제대로 글 쓰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한다. 결혼한 지 4년차에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하면서 살아볼까 고민을 오래 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책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만의 '복합 문화 공간'이 필요했고, 그때 우연히 발견한 신문 기사에서 '강원도가 제2의 제주도'라는 머리말을 발견하고는 그다음 날로 무작정 강원도 부동산 투어를 떠났다. 그때 처음 만난 게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터였다. 처음엔 책방과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결합한 공간을 운영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속박 손님만을 대상으로 카페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신혼집은 지척에 영화관과 백화점이 있는 수도권의 꽤 변화한 도시에 있었다. 비록 낡은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집에서의 소꿉장난 같던 일상을 그리워한다. 화려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집이었으나 정작 그 집에 살 때 가장 많이 찾은 장소는 도서관과 공원이었다. 그 이후로 경기도 외곽의 (큰 도서관과 큰 공원이 있는) 도시로 이사를 했고, 그 집에서의 전세계 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우리는 속초로 왔다.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늘 맞닿아 있다. 지금 삶의 터전을 잡은 이 동네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꿈꾸던 미래가 실현되는 상상으로 가득했다.

사실 속초라는 도시가 좋아서 이주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높은 건물은 한 채도 없고 설악산 자락이 저 멀리 보이는 이 마을이 좋았다. 청대산 아래 소나무 숲길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지금도 걸을 때마다 여전히 황홀함을 느낀다.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을 실감하며 보낸 인고의 시간 끝에 겨우 우리가 구상한 집에 입주할 수 있었다. 비 안 새고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며칠 밤 자고 일어나니, 그제서야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인 속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속초는 1년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지만 관광객들 대부분은 유명한 곳으로만 몰려 다닌다. 태백산맥과 동해바다가 만들어낸 숨겨진 명소들은 포털 사이트나 SNS에는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원래부터 마이너 감성을 갖고 있던 우리 부부는 속초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기 위한 모험을 종종 떠난다.

우리집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려고 만든 공간이다.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 풍경을 가까이 두고 다락에 콕 박혀 글을 쓰거나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는 곳.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고요함이 있고 때로는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곳. 빵을 만들거나 커피를 내리고 직접 만든 음식을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싶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공간을 만들어놓고 보니 꽤 멋져 보였다. 이 공간을 우리 둘만 누리기엔 아까웠다. 그래서 우리 말고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다. 그 뒤로 책 읽을 시간과 산책할 시간, 마음껏 잘 시간과 맘 편히 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속초의 구석진 시골 마을까지 기꺼이 찾아와주고 있다.

속초라는 도시는 타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일 때가 많다. 1년에도 수차례 먼 길을 달려 여행을 오게 만들고, 안정적인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도시다. 속초의 속초다움이 오래도록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곳이 좋아서 온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속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속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야기 보따리

실향민들의 마음의 고향, 내 기억 속 아바이마을을 그리다



차수정

속초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자 속초문
화재단 직원. 사람의 삶과 문화를 연구
하는 민속학도의 시선으로 내 고향 속
초를 기록하고 있다.

20
∨
21

‘아바이마을’로 알려진 속초 청호동은 과거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이었다. 그 러다 한국전쟁 이후 이곳에 피난민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한때는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맡다가 이제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마을이 개발되고 주민 중 실항민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점차 ‘실 항민 마을’이라는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있다.

나에게 속초 아바이마을은 외가가 있던 동네로 기억된다. 외갓집에서는 오 랫동안 사진관을 운영했는데, 나중에 시내로 이전한 뒤에도 아바이마을의 단골 들이 갯배를 타고 찾아오곤 했다. 경상도에서 온 외할머니는 평소 경상도 말씨 를 쓰시다가, 단골이 찾아오면 어느새 함경도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아바 이마을 주민으로 변했다. 어릴 적에 외할머니 손에 자라난 내게는 그 모습이 참 이채로웠다. 그렇게 아바이마을은 내 유년 시절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혹자는 아바이마을 여성을 ‘억세빠진 여자’라 부르곤 한다. 이들의 강한 성 격과 말투, 행동이 얼핏 억척스럽고 드세 보이기 때문이다. 아바이마을 여성은 생업의 현장에서 남성 못지않게 고된 일을 맡았으며 마을을 개척하는 데에도 빠 지지 않고 한몫을 다해왔다. 어찌 보면 이들의 ‘억세빠짐’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힘든 삶을 버텨낸 훈장인 셈이다. 그러나 대중매체나 선행 연구에서는 아바이마 을을 통일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국한하여 다뤘었다. 특히 남성의 서사를 중심 으로 다뤄온 것이 대부분이다. 나는 그것이 참 아쉬웠다.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



© 속초시립박물관



© 차수정

는 아바이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실향민의 마을’로 표출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삶은 어떨까? ‘아바이마을’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떨까?

우리 올 때는 여기가 모래굴망이었어. 집이 하나도 없고 백사장. 피란 나온 사람들이 이북으로 들어간다고 여기서 텐트만 치고 살았어. 그래 살다가 이제 차츰차츰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집을 하나하나 짓고 그래도 구들을 안 놓고 바로 부엌하고 방하고 붙여가지고 그냥 살았지, 이북 먼저 들어간다고.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구들을 놓고 살은 게 집이 하나하나 퍼졌지.

월남한 피난민은 통일 되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 고향과 가까운 속초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움집,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 등 단순한 형태의 집을 짓고 임시거처로 삼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츰 구들을 놓고 ‘하꼬방’이라 불리는 방과 부엌을 갖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는 곧 정착한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점차 피난민들이 터를 잡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쟁 통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당시 속초에 고기가 많이 난다는 소문이 퍼져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이들도 많았다.

정착 초기에는 원래 살던 지역의 이름을 붙이고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

사진 설명

왼쪽 1950년대 아바이마을의 모습.

오른쪽 2010년대 아바이마을의 모습. 왼쪽 사진과 비슷한 위치에서 찍어, 변화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통일 되면 같이 올라갈라고 한 고향 사람한테 시집갔지.”

“아홉 살에 피란 나와가주고, 여 와서 정착했어.”

“나 혼자였어. 근데 여태껏
살았다. 열다섯 살에
(피난)나와가주고
부모도 다 잃고,
꼴이 요롭게 살았다.”

“살아온 생각을 하면은
기도 안 차.”

다. 예컨대 함경남도 신포에서 온 피난민이 많이 산다고 붙여진 신포마을 외에 단천마을, 앵꼬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흥원마을, 이원마을, 영흥마을 등이 이처럼 기존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후 해일 사고, 신수로 개설 등의 이유로 주민이 흩어지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고향과 상관없이 섞여서 살고 있다.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마을에서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다. “나는 이북 사람이 아니라서 할 말 없어” “나는 이북말 못하는데?” 등 예전에 다른 조사들을 미리 해보면서 겪었던 ‘학습된 정체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조사가 진척되지 않을 때면 나는 조사자가 아닌 이웃으로서, 사진관 손녀딸로서 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이북 사람들은 애기 낳고 미역국을 뿔 끓여주느냐면, 우리는 간장에다 소고기 넣고 끓이는데, 거기서는 돼지고기 넣고 미역국 끓이는데 장 풀고 하면은 맛있어. 나하고 같이 이쪽 방하고 저쪽 방하고 똑같이 애기를 낳았거든. 낳아가지고 우리는 간장물에 끓였는데, 그 집 할머니가 끓여가지고 돼지고기를 송송 썰어넣고 장을 풀어넣고 끓여서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맥이 더라고. 그것을 먹으면은 애기 낳은 사람이 금방 좋아진대야.

가장 인상 깊은 일화는 ‘미역국’에 관한 이야기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 미역국 한 그릇을 만들어도 그 방법이 모두 다르다. 즉 실향민들이 각자 타지에서 온 터라 서로를 구분 지으면서 더러 같등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아바이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매일 만남을 갖는 공동 할복장에서, 또 미역국 조리법에서도 나타난다. 몇 십 년 세월을 부대끼고 살아오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했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홍남에서 온 한 할머니는 요즘도 된장을 풀어 넣은 미역국을 만들어 드시곤 한다. 이처럼 아바이마을의 실향민들은 고향을 떠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향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속초시는 ‘실향민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그들의 삶과 정신을 이어나가고, 분단의 현실 속 ‘실향민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축제가 개최되어 세대 간의 이해와 연결, 화합, 공존의 계기, 공감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만수

우리 곁의 사람들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기록사진가 전태극 인터뷰

인터뷰 온다프레스 박대우

“저는 가로 형태의 촬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세로 형태의 촬영보다 주제와 배경이 산만해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기에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제 인물사진 촬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사진의 배경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처한 환경을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두를 담아내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24
 ∨
 25

‘한 방울의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태극 작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 어느 영화에서 소개된 한 구절의 질문이 떠올랐다. 그 영화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 전태극 작가의 인터뷰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전태극 작가는 작년 말 자신이 40여 년간 촬영해온 속초의 기록사진을 속초문화재단에 기증했다. 기증한 사진은 총 8천여 장(필름본 4천 점과 디지털본 4천 점)으로 속초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진정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뜻깊은 기증을 한 장본인을 찾아가 그 자신이 생각하는 속초에 대해 듣고 싶어졌다.

본인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을 처음 배운 건 언제인가요. 특히 도시기록 사진을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954년 대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함경도 출신, 어머니 양양 출신이시고요. 부친께서 한국전쟁 와중에 급히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셨던 터라 언젠가는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제법 번듯한 살림을 꾸리시면서 가족이 한곳 한집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제외하고는 이곳 속초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의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돌아가셨지만…

부친의 횃집을 도우며 결혼을 하고 첫딸을 낳은 때가 1982년. 그는 딸아이의 사진을 잘 찍어주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샀다. 처음으로 손에 쥔 카메라는 니콘. 지금처럼 사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당시 사진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속초의 카메라 현상소 겸 수리점 ‘신우사’에서 사진애호가들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배웠다. 그러던 중 청봉사진회라는 사진모임 창립에 참여해 매년 회원전을 열고 영동지역 합동 전시도 치러냈다. 전태극 작가가 본격적으로 사진예술에 빠진 때도 그즈음이었다.

작가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전시회와 도록 발간은 많이 하

셨는데... 공모전 수상 소식 같은 건 일부러 빼놓으신 건
가요?

사진을 시작했던 한 2, 3년간은 객관적 평가를 받고 싶어
공모전에 응모하여 수상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공
모전의 특성상 주관기관의 성격이나 심사위원의 심사 재
량에 의해 수상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
다. 작가라면 자기 사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고, 그 후로
는 사진공모전은 출품하지 않게 됐습니다.

**1988년 9월 속초와 강릉에서 첫번째 사진전 <풍경>을
여셨는데요. 전시회 도록을 보니 황량한 모래 언덕이 전
부입니다.**

그런 황량한 모래 언덕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가진 잡초들이 전부인 그곳이 내 시선을 머무르게 했습니
다. 거친 풍경은 당시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화두를 안고
있는 내 허한 마음 같았습니다. 그 전시를 통해 모래 알갱
이와 풀잎을 표현하고자 인화 작업을 거듭하면서 인화 실
력이 축적됐습니다. 또한 당시 루이스 발츠의 사진집 『파
크 시티』(Park City, 1980)라는 사진집을 접하면서 사회
적 풍경이라는 새로운 사진세계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
터 도시 기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록 사진을 찍으면서 속초의 변화를 지켜보셨을 텐
데요. 어떤 변화가 주목되나요. 가장 최근에는 속초 곳곳
의 아파트 공사장을 찍으며 그 지역의 전과 후 모습을 기
록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속초의 모습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
년 전쯤 부영아파트가 지어질 무렵에는 공사 자체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아파트 건립 과정을
기록했지만, 그 뒤부터는 아파트가 금세 지어져서 본래
의 산과 언덕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아파트가 시야
를 가렸습니다. 그런 풍경을 보면서 당시 속초의 모습을
누군가는 남겨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속초
지역 사진인의 한 사람으로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
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대포항에서 30년간 횡집을 운영하다가 2010년에 문을
닫은 뒤로 주욱 사진 관련 일에 매진하고 계신다고 들었
습니다. 또한 근래 들어서는 도시를 기록하는 일본 아니
라 속초 사람들의 모습을 찍고 계신다고요.**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내 생활에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
도 이 생활의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
시의 풍경을 주로 찍어오긴 했지만, 기록 중에 제일 중요
한 것이 사람의 기록입니다. 저는 가로 형태의 촬영을 선



© 이만수



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세로 형태의 촬영보다 주제와 배경이 산만해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기에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제 인물 사진 촬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사진의 배경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처한 환경을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두를 담아내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100여 명의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기록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훗날에는 '속초 사람'이라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니까요. 아무튼 한 권의 기록집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속초문화재단에 속초 기록사진 8천여 점을 기증한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찍어 온 소중한 재산을 기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기록물이 공적 기관에 기증되었을 때 나중에라도 내 사진이 재해석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앤디 워홀처럼 네 개의 거대한 창고에 작품들을 쌓아놓는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동안 전시회에서 쓰기 위해 인화한 사진이나 책을 꽤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사진이 재해석되고 후세라도 속초의 옛 모습으로 소개된다면 곧 내 사진이 영원히 사는 길 아닐까요. 근래 들어서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종종 생각해요. 꿈이라면, 저를 그저 싸구려 배낭을 메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시내 곳곳을 다니며 셔터를 눌러대던 사진인으로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맨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새 나왔다. 전태극 작가의 "내 사진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려보자. 한 방울의 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하려면, 그것을 바다로 던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 쓴 수많은 선인들이 남긴 교훈이다.

전태극 기록사진가는 1954년 속초 대포에서 출생해 1984년 청봉사진회 창립회원, 1995년 (사)한국민족사진가연합 창립회원을 거쳐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속초지부장을 네 차례 역임한 속초의 대표 문화예술인이며,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제17회 속초시민문화상을 수상했다. 각종 사진 강좌의 강사로 18년간 일해왔으며, 개인전 16회, 기획전 및 단체전 70여 회를 열고 세 권의 사진집을 출판하는 등 속초의 모습을 기록하는 작품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이번에 8천여 점을 기증한 이후에도 전태극 작가는 본인의 자료를 정리해 추가로 기증할 예정이다.

속초 느낌표

책 읽기가 힘든 어른들을 위해 추천하는 가벼운, 그러나 묵직한 그림책

『달향아리』



어린이책 읽는 어른 모임 2003년 속초교육문화관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해보고 싶어 자발적으로 모임 어른들의 독서 모임. 매월 1, 3주 토요일에 모여 새로 발간된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글은 '어린이책 읽는 어른 모임'의 김종현이 썼다.

‘그림책’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래 출간되는 그림책 중에는 아이들만이 아닌, 어른들도 함께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아졌다. 아예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표방하는 시리즈들이 출판되기도 한다.

글 텍스트로 서사를 전달하는 스토리 북(story book)과 달리, 그림책(picture book)은 문자언어로 표시되는 글 텍스트와 함께, 시각언어로 표시되는 그림 텍스트가 서사를 이끌어간다. 이런 연유로 그림책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그림책 자체를 아이코노텍스트(iconotext), 즉 제3의 텍스트라고 정의한다. 즉 그림책에서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는 각각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서사를 이끌어가고, 다른 한편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 독자의 머릿속에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낸다. 진정한 그림책이란 이와 같이, 글자와 그림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작용을 기반으로 독자가 만들어내는 서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작고 약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들을 가만히 그려 봅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이야기로 담아낼 수 있길 바라며 그림책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뵈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웬지 달항아리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많은 밤 할머니를 그리며 만든 『달항아리』는 저의 첫 그림책입니다.

— 출판사 다림의 작가 소개 중에서

조영지 작가의 첫 그림책인 『달항아리』에서 작품 속 내레이터로 등장하는 달항아리는 한국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백자다. 눈처럼 희고, 보름달처럼 둥글면서 소박한 달항아리는 흔히 우리 민족만이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담백함과 푸근함, 넉넉함을 상징한다. 작가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아낙네가 세 아이를 품에 안고 묵묵히 살아내야만 했던 질곡의 삶을 우리 민족을

닮은 달항아리의 시선으로 담담히 풀어낸다. 주인공 억척네는 남편이 징용되자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본인 지주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 억척스럽게 일한다.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지주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조선을 떠나고 억척네는 그동안 일한 품삯으로, 지주가 두고 간 달항아리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한국전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배고프다고 엉겨 붙는 아이들을 뿌리치고는 떡을 찌서 바쳤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북에서 온 군인들에게, 한 번은 미군과 함께 온 경찰들에게,

— 본문 중에서

그림책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 현실 세계와 이야기 속의 세계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져 있지 않아서,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 이야기를 이해하기도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책이 가진 힘이다.

그림책 『달항아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분단 등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굳세게 견뎌낸 힘없는 개인들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한다. 역사는 강자의 시선과 철학을 토대로 쓰였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역사의 뒀안길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갖 피해를 본 개개인의 굴곡진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림책 『달항아리』는 역사적 의미가 아닌, 참혹한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에 귀 기울이고 경의를 표하며 그들을 위로한다. 박물관에 보관된 달항아리를 쓰다듬는 거칠고 매듭진 억척네의 손길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듬고 품어주는 이들이 있어 살아갈 만하다.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도시기록가 전태극 사진 8,000점 기증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시민문화활동가로서의 활동해온 전태극 작가가 40여 년간 촬영해온 작품 중에서 필름사진 4,000점, 디지털 사진 4,000점을 지역의 기록자료, 시민의 공유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속초문화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오래된 필름사진의 경우는 기록 데이터로서의 보존을 위해 디지털 변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증자의 뜻에 따라 다양한 문화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문화활동가 굿즈 전달

2020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함께한 시민문화활동가 100인에게 오케이속초 비가 새겨진 굿즈를 전달했습니다. 2020년 사업을 무사히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준 활동가들 덕택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손과 발로 만드는 문화도시 속초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습대! 속초」 언론보도

속초공감의 '맛애(愛), 썩(SOK)'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마습대! 속초』가 발간 이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맛애 썩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문화활동가들은 1월 11일 강릉 KBS라디오 5시 정보쇼, 1월 27일 KBS1라디오 전국일주에 출연하여 속초의 음식문화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발간을 토대로 앞으로도 속초의 자원을 재발견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연감 발간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2020년 추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연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연감은 2020년도 추진 성과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조성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집필되었습니다. 시각적인 요소와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고, 영상 자료의 QR코드를 통해 사업의 전반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갤러리 Part 1 : 오케이속초, 2020 개최

2020년 한 해의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돌아보는 성과 공유회인 <문화도시 갤러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든 결과물들을 공유하기 위해 속초공감, 속초아트컬렉션, 속초인물수첩 등 다채로운 전시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갤러리 전시를 통해 2020년을 되돌아보고 2021년 사업의 지향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올해 더욱 풍성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범 1주년

속초문화재단은 2020년 2월 10일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설립되어 2021년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재단은 올해에도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시민행복 문화도시 속초"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속초가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속초 문화예술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시민들이 두루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OKCHO CULTURAL FOUNDATION 1 YEARS ANNIVERSARY

